

쉽고 재미있는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쉽고 재미있는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1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	3
2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	4
3화	‘생태 발자국’ 작을수록 좋아요	5
4화	지구의 위기 - 기후 변화	6
5화	지구의 위기 - 자원 고갈	7
6화	지구의 미래를 위한 계획 - 리우 회의와 의제 21	8
7화	세계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9
8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등장하기까지	10
9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11
10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 지방의제 21	12
11화	미래를 이끄는 착한 기업의 비결 - 지속가능한 경영	13
12화	모두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14
13화	쌓일수록 지구가 병들어요 - 푸드마일리지	15
14화	지속가능한 건강 지키기	16
15화	환경을 지키는 바람직한 소비습관	17
16화	해외에서 배운다 -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18
17화	생태지킴이 - 국립생태원	19
18화	자연을 배우는 환경 체험장 - 자연환경연구공원	20
19화	생활 속 실천방법 - 가정편	21
20화	생활 속 실천방법 - 직장편	22



아빠

중소기업 경영. 현재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 중.
다양한 외국출장 경험이 있다.
막내 동생인 삼촌에게 매우 엄격하다.



엄마

너그럽고 발랄한 성격. 아파트 부녀회장.
분리수거에 열심이고 알뜰한 반면 설거지를
귀찮아해서 일회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은수

여대생 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며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
아빠에게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추천 중이다.



민수

고등학교 1학년 아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인터넷게임과 SNS에만 빠져 있다가 좋은 정보를
찾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쁨도 알게 된다.



삼촌

취업준비생. 게으르고 편한 것을 추구한다.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눈을 뜬 뒤 취업에 성공한다.

1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



삼촌이 더 많이 잡았네.



형님은 나한테 못 당한다니까.
 그렇게 치어들을 잡다니. 년 지속가능한 발전도 모르냐?
 그게 뭔데요 아빠?
 하하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 발전해왔지. 인간은 자연을 마음껏 소유하고 지배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현대 물질문명 사회는 바로 이런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 위에 세워진 거야.
 하지만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대규모 환경오염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왔지.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



경제개발만큼 환경보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아야.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이 등장한 거야.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들의 여건과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한 발전을 추구하는 일을 말해.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ECD)
 우리공동의 미래



잘 가라... 나중에 우리 민수한테 꼭 잡혀렴.
 으~ 아까워

2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



일로 에비셔널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3화 '생태 발자국' 작을수록 좋아요



일로 세이브는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4화 지구의 위기 - 기후 변화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5화 지구의 위기 - 자원 고갈



일로 에버리슨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뭐!? 세계 식량위기가 코앞이라고?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2.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이라고요.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잖아!

하지만 중국 역시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곡물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어요.

세계 1위 곡물수입국 중국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사막화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고, 화석연료 값이 올라 식량 운송도 어려워져서, 곡물값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가뭄으로 옥수수 농사를 망쳐 버렸어.

아프리카로 수출해야 하는데 큰일이군.

지난 1년간 세계 식량가격은 30% 이상 올라, 저개발국 국민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3.6초마다 한명씩 굶주림으로 숨지고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3백만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고 있어요. 미래의 대재앙은 바로 식량과 물 부족에서 온다는 예측도 있어요.

매일 물을 길느라 학교에도 못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섯 시간이나 걸렸어.

빵을 달라!!

빵을 달라!!

안돼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산화탄소(CO2)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죠. 그래야 지구 환경이 되살아날 거예요.

와~, 태양열로 전기를 만든니까 에너지가 절약되네.

좋아!! 이제부터 물 한방울도 아껴 써야겠다.

〈머칠 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좀 씻어야 될 거 아니예요?

물을 아껴야죠!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겁니까아!!

어휴 냄새~!



일로 세이브!



여보, 잘 도착 하셨어요?

아빠, 브라질은 어때요?

어, 날씨 좋구나. 게다가 리우+20 지구 정상회의가 열려서인지 아주 활기차네.

리, 리우 뭐가 열린다구요?



<브라질 리우공항>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회의야! 정식 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대한 국제연합회의(UNCED)라고도 하지.



리우선언 Agenda21

1992년 첫 회의에서 리우선언과 Agenda21이 채택되었는데

리우선언 Agenda21

KOREA



리우선언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을 실천하고 협력 해야 한다는 27개의 원칙이야.



그럼, Agenda21은 뭐예요?

지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까? 특히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단다.



아빠, 그럼 리우선언을 안 지키면 법적으로 무슨 벌을 받나요?

하하하

강제적인 것은 아니야. 단지 각국의 보존계획과 개발계획에 꼭 반영될 것일 바라는 거지.



아, 그거 맘에 든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참, 삼촌, 방 치웠어요? 빨래감은요? 이런 식이면 이번달 용돈은 없어요~

째릿

째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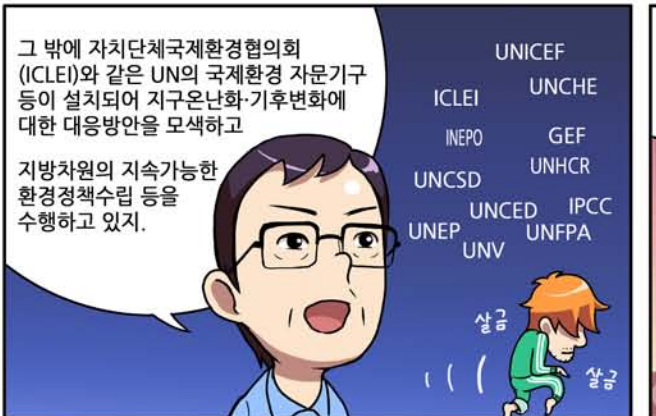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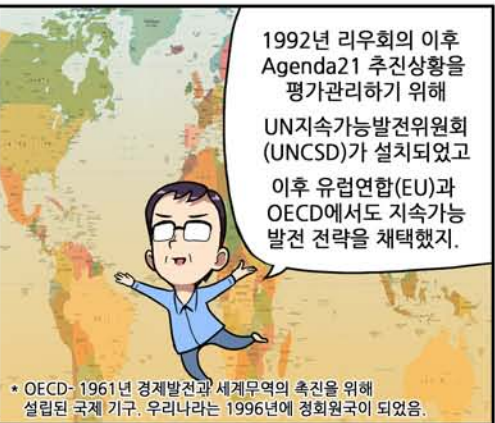
아, 지구를 보호하는 일도 억지로 안 시키는데, 너무 하신다~ 형수님~

알아서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7화 세계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8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등장하기까지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9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는 일은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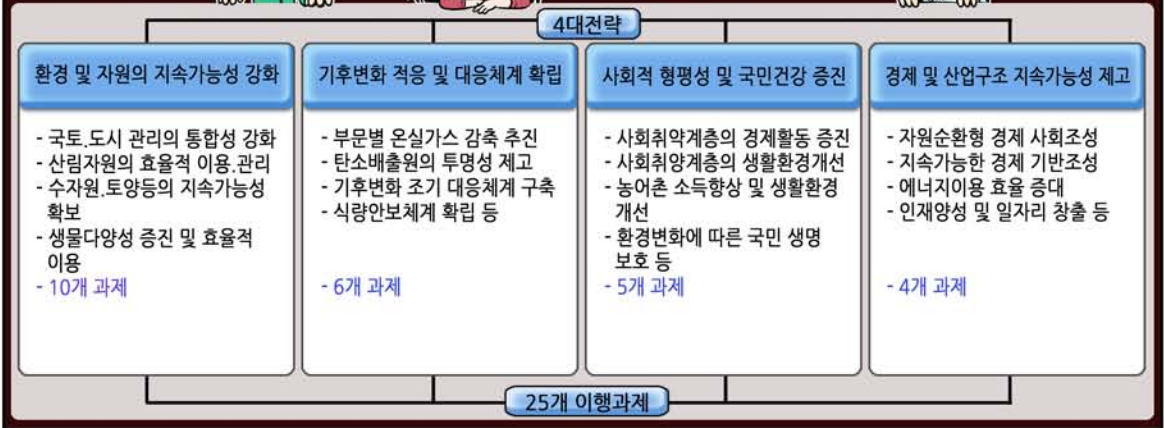


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전문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별로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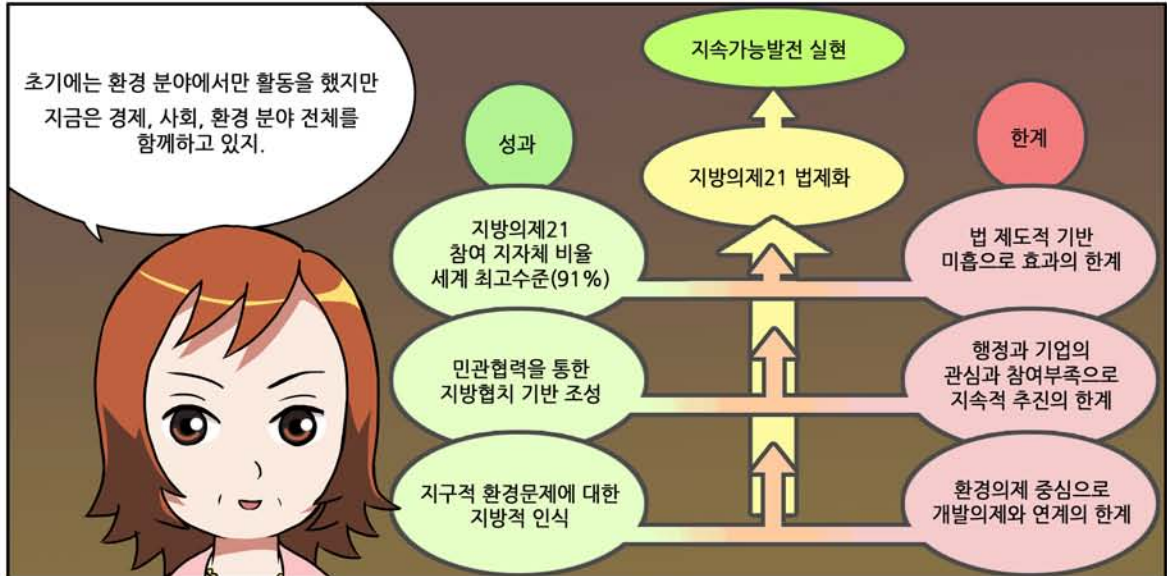
<p>자연·자원분과</p> <p>국토이용관리, 자연생태, 국토복원, 수자원, 연안, 해양, 하천관리 등 분야</p>	<p>에너지산업분과</p> <p>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 생산, 소비, 에너지 수요관리, 자원순환사회 구축, 녹색산업기술 관리 등 분야</p>	<p>사회·건강분과</p> <p>지속가능 사회 및 건강, 환경성질향, 독성관리 등 분야</p>	<p>기후변화·국제협력분과</p> <p>기후변화, 대기관리, 국제동향 파악, 교육, 홍보 등 분야</p>
---	---	---	---



10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 지방의제 21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일로 세이브



12화 모두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사회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비켜요
비켜!



통조림, 수입과자!
바나나...
와 다 내가
좋아하는 거다!

푸드 마일리지
높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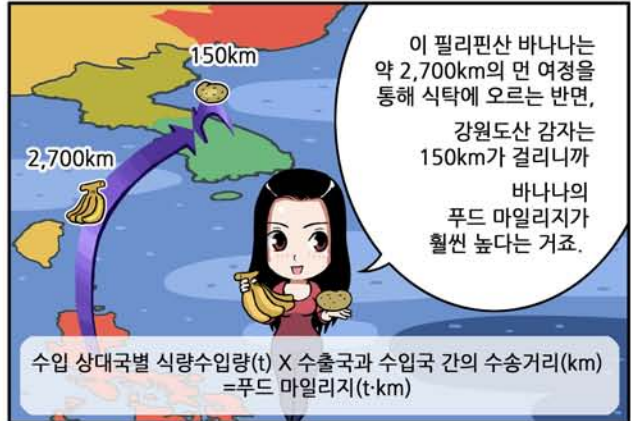


푸드 마일리지?
그게 뭔데?

1994년 영국의 소비자운동가
팀랭(Tim Lang)이 만든 개념이죠.

우리 식탁과 생산지 간의
거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이 둘을
비교하면



이 필리핀산 바나나는
약 2,700km의 먼 여정을
통해 식탁에 오르는 반면,
강원도산 감자는
150km가 걸리니까
바나나의
푸드 마일리지
훨씬 높다는 거죠.

수입 상대국별 식량수입량(t) X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수송거리(km)
=푸드 마일리지(t-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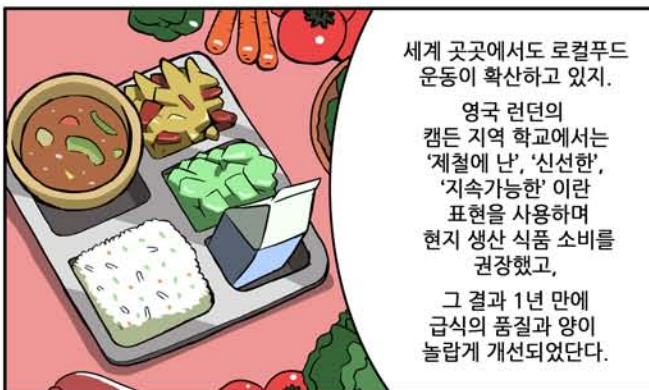


수입 식품은 비행기나
배로 운송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연료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지.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거네?
어쩌지?



현지 생산 식품을 이용하면 돼.
우리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은
가능한 경기도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거지.



세계 곳곳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
영국 런던의
캠든 지역 학교에서는
'제철에 난', '신선한',
'지속가능한'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현지 생산 식품 소비를
권장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급식의 품질과 양이
놀랍게 개선되었다.



자, 여기
현지 생산 식품
대형이오!

으악!
마트 찾길 옆에
있는 민들레
아냐?

삼촌 정말
이러기야?

으이쿠...

14화 지속가능한 건강 지키기



일로 세미스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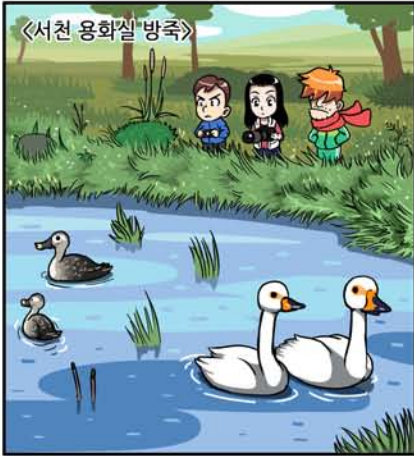
15화 환경을 지키는 바람직한 소비습관



일로 세이상은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서천 용화실 '방죽'>



어? 저기 큰 고니 아냐?
아, 추워~ 바람 좀 썰까 따라온 내가 잘못이지...
어디 어디?
저깁 새가 뭐가 신기하다고.



큰 고니는 멸종위기종 2급에 천연기념물 201호인 귀한 새라고요.
여름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도 돌아왔대요.
와~ 흰뺨검둥오리다.



그 귀하신 새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대?
그게 다 이 인근에 있는 국립생태원 때문이죠.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와우~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환경부에서 추진해서 건립한 거예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적응을 연구하고, 서식처를 복원해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죠.
더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맞다, 북극 빙하가 다 녹아 북극곰이 위기에 처했지..



사실 처음엔 이곳 갯벌을 다 없애버리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대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가 사라질 뻔 했던거죠.



게다가 국립생태원 건축물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삼중유리, 자연채광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모두 활용했죠.
와~ 멋지다~



잠깐, 삼촌.. 지금 우리 재네 집에 온 손님이거든요?
조심조심 예의 바르게 행동해주세요.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애들아 미안~



일드 에비셔널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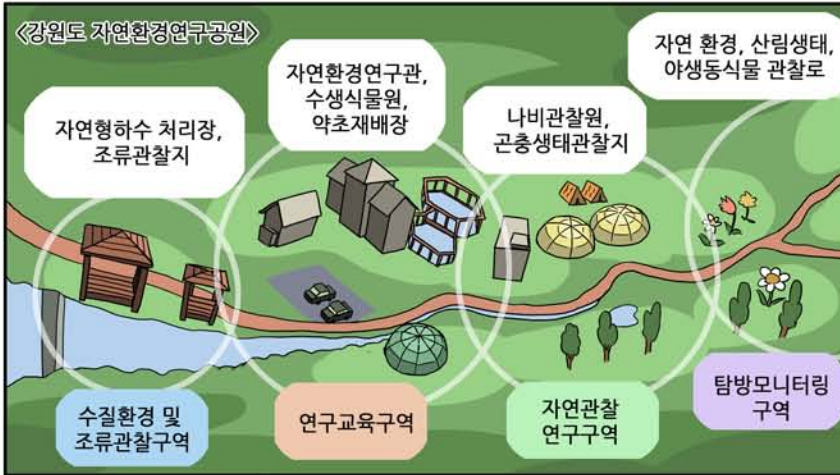
여긴 어디죠?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렇지?



이곳은
자연환경 연구 공원이야.
자연생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지.

와, 환경
오염이 없는
전기자동차...



또 이곳은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의 보전기관이기도 해.

서식지의
보전기관이요?



저 아이들...
이 좋은 자연을 나비들과
함께 누리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거야.



와~ 반딧불이 좀 봐요.
천연기념물인데
여기서 다 보네요.



반딧불이를 보니,
옛날 생각나네?

우리 처음
데이트 하던 날요?

어머...



응? 아니,
나 어렸을때 반딧불이 잡아서
책 읽는다고 했는데 말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19화 생활 속 실천방법 - 가정편



일로 세미스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이번엔 일상생활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춡다, 추워~ 윽~잉~잉~

에어컨을 끄면 되잖아요!!

여름엔 26도씨 이상, 겨울엔 20도씨 이하로 유지해요. 냉, 난방온도를 1도씨 조정하면 연간 110Kg의 CO2가 줄어들고 냉, 난방비 34,000원이 절약됩니다.

여름
26
겨울
20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기기 전체 이용전력의 약 10%나 차지하거든요.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17kg의 CO2를 줄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잠잘 때는 불을 끄세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이용을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2를 줄일 수 있어요.

친환경 상품 구입으로도 환경보호를 할 수 있어요.

환경표지인증
000g CO2

환경표지인증, 에너지 효율등급을 확인하세요. 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면 자연에도 우리 건강에도 좋아요.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립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자원을 아끼세요.

플라스틱 캔 종이 병

아주머니들!! 장바구니를 애용하세요~ 장바구니를~

오~ 삼촌 제법인데? 장바구니는 언제 챙겨왔대?



쉽고 재미있는

지속가능발전 이야기

Sustainable Developmen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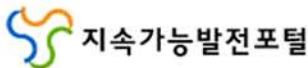
발행처 : 환경부
기획/제작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엔쌩엔터테인먼트
발행일 : 201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Tel 044-201-6650 Fax 044-201-6654
<http://www.me.go.kr>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Tel 02-380-7777 Fax 02-380-7799
<http://www.kei.re.kr>



<http://ncsd.go.kr>

※ 본 홍보만화에 수록된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원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